

녹십자, 독감백신 입찰자격 획득

WHO, 식약청이 승인한 백신 인정 ... 화순공장 제조시설 점검도

독감 백신 제조기업 녹십자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독감백신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WHO 산하기구인 범미보건기구(PAHO)는 2009-10년 남미지역 계절독감 백신 입찰 참가자격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백신을 9월9일부로 포함시켰다.

PAHO는 최근 남미지역에 공급할 1800만명분의 계절독감 백신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한다고 각국 백신기업에 통보한 바 있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계절독감 백신 제품은 미국과 캐나다, EU(유럽연합),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한국의 의약품 규제당국 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녹십자의 계절독감 백신 <지씨플루>는 7월에 식약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국내 독감백신이 WHO 입찰 기업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중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의 독감백신은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WHO는 2008년 녹십자 화순공장을 찾아 제조시설과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점검했으며, 녹십자는 입찰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십자 관계자는 “남반구의 겨울에 대비한 입찰 물량은 2010년 3월까지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 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납품기일이 촉박하지만 해외 백신기업도 마찬가지여서 가능한 한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09>